

부모세대 자본이 청년의 미래전망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비수도권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형수*

박성민**

유재은***

백경민****

숭실대학교 석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청년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정책학 박사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인적자본·사회자본·문화자본 등이 청년세대의 미래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공간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3년 3월 청년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에서 실시한 “청년 미래전망 조사 2023”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혼합연구를 설계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에서 부모세대의 인적자본·사회자본·문화자본과 전체 청년세대의 미래전망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문화생활로 대표되는 문화자본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청년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미래전망은 부모의 사회자본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며,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미래전망은 부모의 문화자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점집단면접으로 실시된 질적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 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청년의 거주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공간 내 구성원이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문화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 기반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청년 미래전망, 부모세대 자본, 수도권/비수도권

본 논문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김형수/숭실대학교 석사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9 12732/

E-mail: 12gega@naver.com

** 공동저자: 박성민/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E-mail: tjd9824@naver.com

*** 교신저자: 유재은/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정책학박사/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51 B6145

E-mail: jaeyou@snu.ac.kr

**** 교신저자: 백경민/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9 12732/

E-mail: kbaek37@ss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전망이란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시간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인식이다. 미래전망은 개인이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향후 자신에게 기회가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어홍실, 2016).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미래전망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과 세대 내 불평등 등으로 인해 불안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속적인 저성장과 잠재성장률의 위축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악화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구직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은 ‘번듯한 일자리’를 갖기 위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청년들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갈등 수준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김의동, 2019; 진미정 외, 2019; 조귀동, 2020).

또한 향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스스로의 노력보다 부모의 배경에 더 좌우된다는 인식은 청년들이 좌절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예로 지금까지도 청년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수저담론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나오는 혜택이 자신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 미래전망과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이미숙, 2022).

실제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스스로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이기도 하나, 부모 배경 또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덕호, 2021). 또한 자녀인 청년들의 학업성취(방하남·김기현, 2002)나 취업 성과(김정숙, 2009; 이자영·연보라, 2012)등에서도 부모세대의 영향력이 확인된다. 즉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세대 내 불평등은 자신들의 노력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 내에 존재하는 격차와 불평등에서 이어진 것일 수 있다(김종성·이병훈, 2014; 김영미, 2016; 김덕호, 2021; 정우연 외, 2022).

그렇다면 불평등이 청년의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이수비 외, 2022), 부모가 가진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관계망 등은 청년의 미래전망과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살피기 위해 본 연구는 부모세대가 자녀인 청년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자본을 경제자본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자본이 청년의 미래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역을 변수로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표되는 지역 간 격차 또한 청년들이 ‘불평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부모의 자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모세대의 자본 상속과 청년세대의 미래전망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지역적 요소를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먼저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사회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문화자본 차원에서의 격차가 존재하며(박해남·박미희, 2021),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는 청년들 간의 노동 격차와 임금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문영만·홍장표, 2017). 비수도권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 있으며, 따라서 지역이 제공하는 여건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은 각기 다른 미래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사회공간에서의 개인화와 자율화 등 공간의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모의 자본 유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자본 상속에 따른 청년세대의 미래전망 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미래 전망 형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여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1. 부모세대의 자본

일반적으로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소득이 최상위 그룹에 위치하는 반면 하위 그룹에서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김승연·박민진, 2021). 따라서 부모세대 내의 경제적 격차는 자녀인 청년세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세대가 청년세대에게 상속하는 자본이 반드시 돈이나 부동산 등 경제적인 형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부르디외는 자본을 사회 내에서 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물질적 또는 상징적인 모든 재화를 지칭한 바 있다(Bourdieu, 1977). 따라서 경제적 자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교육 수준, 문화적 취향 등의 무형의 자산 또한 부모의 자본을 상속하는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자본 중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 가지 형태의 자본 개념은 불평등의 형성과 상속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조희숙·김안나, 2014; 장상수, 2016; 이소영·이창무, 2019).

1) 인적자본

인적자본은 경제적 가치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적 역량으로, 개인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획득한 기술이나 지식 등이다. 인적자본은 그것을 통해 경제적 가치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역량으로 여겨지며, 타 자본들과는 달리 개인 자체에 축적되는 자본이다(이상일, 2007). 대표적으로 베커는 자녀 세대의 학업과 경제적 성공은 부모 세대가 가진 경제적 자원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라고 보았다(Becker, 1993). 이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자녀들에 대한 투자 양은 줄어드는 반면, 높을 경우에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베커는 소득이 낮은 가구는 자녀가 인적자본을 창출하게끔 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았다(Becker, 1993).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인적자본은 주로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으로 측정되어왔다. 학업성취가 자녀세대의 경제적 성공과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세대의 인적 자원 수준은 자녀세대의 미래전망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커는 개인마다 인적자본이 다르게 형성되는 이유를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며, 따라서 학력에 얼마나 투자했는가는 인적자본 수준을 파악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Becker, 1993). 국내 연구 중에서 방하남·김기현은 부모 중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 경우 자녀가 상위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방하남·김기현, 2002), 박창남·도종수의 연구는 부모세대가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면 자녀교육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 기대가 높아지기에 자녀의 학업성취와 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았다(박창남·도종수, 2005). 따라서 부모의 최종학력은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부모세대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

2)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개인 또는 집단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창출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Putnam, 1993). 사회자본은 사회적 행위자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된다. 콜만은 자본을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위구분을 통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 세대의 영향력을 설명한 바 있다(Coleman, 1988). 이 중 사회자본의 경우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구성요소로 보았다(Coleman, 1990).

일반적인 형태의 자본들은 사용할수록 소비되는 반면 사회자본은 관계망에 기반한 교류를 통해 강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연결망은 사회자본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 척도로 활용되어 왔으며,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이 소유한 관계망의 양과 수준에 따라 어떤 사회적 이익 또는 성취를 취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왔다(고상민 외, 2010).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다.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의 경우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보 습득의 질과 양에서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부모의 연결망을 통한 정보 습득은 자녀의 직업포부 수준과 같이 개인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n & Dumin 1986).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2: 부모세대의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

3) 문화자본

문화자본은 사회화를 통해 습득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향 또는 습관을 의미하며(Anheier et al., 1995), 그 소유 정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계급을 결정짓는 요소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경제자본은 생애기간 동안 증가하지만,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감소할 수도 있는 등 그 보유량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자본은 개인이 계급 내에서 공식적인 교육 또는 사회화 등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기에, 최초에 습득한 보유량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Bourdieu, 1986; Bartee & Brown, 2007).

부르디외는 각 사회 계층별로 상호 간 통용되는 문화적 취향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풍부한 계층은 고급문화를 즐기며 ‘아비투스(habitus)’를 형성하지만 하류계급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다(Bourdieu, 1986; 김갑수·한상연, 2018). 예로 중산층 이상의 문화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는 학업 과정에서 그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문화자본이 자녀세대의 학업 성취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Lareau, 2003). 다만 문화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 교육기관을 통한 사회화가 포함되며, 선행 연구 중에서는 교육열을 통해 교육변수가 문화 자체를 연결하는 등(김영화, 1993) 교육변수가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양측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문화자본의 측정에는 교육을 통한 사회화 뿐만 아니라 취향이나 문화생활 등 개인적 기호에 가까운 부문 또한 측정되어야 하기에, 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한국사회는 발전과정에서 급격한 계급구조의 변화를 경험했기에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장미혜, 2001). 그러나 부모세대의 문화자본과 자녀세대의 성취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 장미혜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계급이나 거주지, 성별, 교육년수를 통제 한 후에도 자녀세대의 수학능력 시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장미혜, 2002). 또

한 장상수는 부모의 문화자본 수준과 자녀의 성적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장상수, 2008).

종합하자면 부모세대가 가진 문화자본은 자녀세대인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이행, 사회관계망 형성 등에 영향을 미쳐 미래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 부모세대의 문화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

2. 자본의 재생산과 지역적 요소

이어서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자본이 청년세대의 미래전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지역적 요소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적 요소는 각각의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 특성에 기반한 것이다.

한 사회 공간에서 개인들은 각자 간의 유사한 배경에 기반하여 하나의 집합을 이루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들의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집합을 이룰 수 있다. 대표적으로 뒤르켐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의 분업과 개인화가 진척되며, 그 형태에 맞는 연대 방식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개인화가 연대의 해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가 실현되는 배경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뒤르켐은 이러한 연대에 대해 전자를 ‘기계적 연대’, 후자를 ‘유기적 연대’로 정의한 바 있다(Durkheim, 1933; 서유석, 2013).

이처럼 지역 공동체 내 개인화와 자율화 수준은 지역 내 공동체의 연대 특성을 구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때 지역 차원에서 개인들의 자율화가 더욱 진척된 공간은 도시 공간일 것이다.

현대 도시 사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얇고 유기적인 신뢰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비교적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동질적이고 강력한 신뢰관계가 나타난다

고 여겨진다(Newton, 1997). 특히 한국 사회의 도시화는 농촌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이촌향도와 그에 수반되는 사회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의 수도권 지역은 유사한 배경을 지닌 전통적 사회공간 구조에서 다중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로 변화하였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개인화가 진척된 공간이며 개인들 간의 자발적인 상호의존과 연대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공간이다(조명래, 2002).

따라서 자발적인 상호의존을 통해 확보하는 사회적 연결망, 곧 사회자본은 그 특성상 도시인 수도권에서 더 유용하게 인식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4-1: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의 경우,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반대로 비수도권은 유기적 연대보다는 기계적 연대가 중요한 공간일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화가 촉진된 도시 공동체와 반대로, 전통적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상호 간에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연대감·공공성·정착성 등 공동체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정규호, 2012). 따라서 이미 연결망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자본 외 타 자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4-2: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의 경우, 사회자본 외 타 자본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및 자료원

먼저 양적 자료원으로 2023년 3월 지방시대위원회(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부모의 자본과 경험이 청년의 미래전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실시한 ‘2023년 청년 미래전망 조사’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며, ‘2023년 청년 미래전망 조사’의 경우 청년연구단체인 스페셜 스페이스가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 조사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 1항이 청년세대로 규정하는 19세~39세에 해당하는 전국 54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모두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대상자는 <표 1>과 같이 청년세대 16명과 부모세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주 현황과 지역 간 이주 경험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이 균등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을 4~6명씩 5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FGI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현재거주지역	과거거주지역
A	여성	23	수도권	비수도권
B	남성	34	수도권	비수도권
C	여성	24	수도권	수도권
D	여성	21	비수도권	수도권
E	여성	21	비수도권	비수도권
F	여성	39	수도권	비수도권
G	여성	41	비수도권	수도권

	성별	연령	현재거주지역	과거거주지역
H	여성	42	수도권	수도권
I	여성	42	비수도권	비수도권
J	남성	25	수도권	비수도권
K	남성	36	비수도권	비수도권
L	남성	32	수도권	수도권
M	여성	32	비수도권	비수도권
N	남성	38	비수도권	수도권
O	남성	33	비수도권	수도권
P	여성	30	비수도권	비수도권
Q	여성	23	비수도권	수도권
R	여성	23	수도권	수도권
S	여성	22	수도권	수도권
T	여성	22	수도권	수도권

* 부모세대: F, G, H, I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자본 수준과 청년의 미래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혼합연구(mixed method study)를 설계하였다. 혼합연구는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과 기본 가정을 지닌 양적·질적 방법을 혼합하는 것으로, 연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성용구, 2013). 혼합 연구방법은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이 각기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으며, 양적 연구에서 의외의 결론이 나왔을 때 질적 연구가 그 해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오은주, 2008).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부모세대의 자본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연대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양적 연구만으로는 실제 청년들의 경험이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해 실제 경험과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합의 및 정책적 제언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혼합연구는 연구주체의 특성에 따라 양적·질적 연구 중 어떤 것을 주 방법론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주 방법론으로 하여 이를 먼저 시행한 후, 질적 연구로 이를 보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경우 양적 연구에서는 대표 집을 기반으로 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질적 연구는 소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진행하게 된다(Morse, 2007). 이후 도출된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후 논의 과정에서 두 자료를 통합하여 해석을 도출하는 동시적 수렴적 방법(convergent parallel manner)을 사용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진 각 집단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통계 프로그램인 STATA 16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채택하였다. FGI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주제에 대해 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설문조사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을 포착하거나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여겨진다(Lederman, 1990; Parker & Tritter, 2006).

2020년부터 창궐한 COVID-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대상자들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퍼져 있어 특정 장소에 모이는데 제약이 있는 관계로, 본 연구는 화상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하는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FGI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실시되었으며 연구진이 사전에 구성된 <표 2>의 개방형 질문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FGI를 진행하기 전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인터뷰에 대한 간략한 공지와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익명성과 인터뷰 내용의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의 인터뷰는 녹음 후 녹취록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또한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 이후 연구진 회의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2> FGI 개방형 질문 목록

영역	질문 내용
부모의 문화·사회자본	당신은 부모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지금 당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미래 전망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긍정적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이신가요?
부모의 문화·사회자본의 지역적 차이	당신은 지역(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서울(또는 지역)과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망의 지역적 차이	당신은 지역(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서울(또는 지역)과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종속변수

양적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미래 삶에 대한 전망이다. 개인의 미래전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으며(진미정 외, 2019),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구여건 및 경제 상황, 취업 기회, 행복 정도 등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질문하는 여러 항목들로 측정되어 왔다(이수비 외, 2022). 본 연구는 총 11개의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의 평균값을 청년세대의 미래전망 수준으로 활용하였다. 11개의 문항은 각각 1) 전반적인 생활; 2) 가족 관계; 3) 교우 및 직장 동료 관계; 4) 학교 및 회사 생활; 5) 사회에 대한 신뢰; 6) 진로 및 일 자리; 7) 경제적 수준; 8) 주거 환경; 9) 건강 상태;

10) 여가 생활 수준; 11) 사회적 인맥 형성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11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1) 매우 낮아질 것이다; 2) 다소 낮아질 것이다; 3) 그대로 일 것이다; 4) 다소 높아질 것이다; 5) 매우 높아질 것이다로 구성된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11개 문항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0.91로 나타났다.

4)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그리고 문화적 자본이 활용되었다. 먼저 부모세대와 자녀 간 자본 상속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인적자본을 부모의 교육수준 및 최종학력으로 측정해왔다(방하남·김기현, 2002; 박창남·도중수, 2005; 장상수, 2008). 따라서 본 연구 또한 부모의 인적자본을 부모의 최종학력으로 보았다. 해당 설문문항은 1) 고등학교 졸업 미만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2,3년제) 재학 4) 대학(2,3년제 졸업) 5) 대학교(4년제) 재학 6) 대학교(4년제) 졸업 7) 대학원(석박사) 졸업 8) 기타 9) 해당 없음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사회자본은 응답자의 부모가 다양한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연결망의 숫자와 참여강도가 높을수록 많은 사회자본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문항은 1) 가족단위 모임 2) 반사회 3) 학부모 모임 4) 동호회 5) 봉사단체 6) 종교활동 7) 정당 8) 노동조합에 응답자의 부모가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를 ‘참여하지 않는다’ (1점)부터 ‘일주일에 여러 번’ (7점)과 같은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자본 변수는 해당 7개의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은 0.90로 나타났다.

부모의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국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이형문, 2012; 강혜련, 2014; 허윤주, 2015) 문항은 1) 나의 부모님은 평소에 문화예술 관련 정보나 소식에 관심이 많다.

2) 나의 부모님은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을 자주 가려고 한다. 3) 나의 부모님은 소득의 일정부분을 문화비로 지출한다. 4) 나의 부모님은 공연장이나 전시회 등 문화예술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5) 나는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따로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6) 나는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7) 나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인터넷과 TV 등으로 자주 보는 편이다라는 7개의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같은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의 문화적 자본 변수는 해당 7개의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은 0.89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양적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현재 지역 거주 기간, 응답자 본인의 최종 학력, 그리고 월 평균 개인 소득을 활용하였다. 지역 거주 기간은 1) 1~3년 2) 3~5년 3) 5~10년 4) 10년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본인 최종학력은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2년제 대학 재학·졸업 3)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월 평균 개인 소득은 1) 300만 원 미만 2)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3)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4) 900만 원 이상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IV. 결과

1. 양적 연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수도권 거주자는 282명, 비수도권 거주자는

263명이며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279명, 여성은 266명을 차지하였다. 현재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는 전체 중 약 51%를 차지하였다.

최종 학력의 경우 응답자인 청년 세대의 최종 학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부모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대학교(4년제) 졸업'인 응답자는 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최종 학력의 경우에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에도 청년 세대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월 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수도권 거주 가구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비수도권 거주 가구 소득 수준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기술통계

	전체 (n=545)	수도권 거주 (n=282)	비수도권 거주 (n=263)
연령 (평균, 표준편차)	29.6 (5.76)	29.7 (5.70)	29.5 (5.82)
성별			
남성	279 (51.19)	140 (49.65)	139 (52.85)
여성	266 (48.81)	142 (50.35)	124 (47.15)
지역 거주 기간			
1년 미만	36 (6.61)	21 (7.45)	15 (5.70)
1년-3년	95 (17.43)	53 (18.79)	42 (15.97)
3년-5년	62 (11.38)	37 (13.12)	25 (9.51)
5년-10년	74 (13.58)	35 (12.41)	39 (14.83)
10년 이상	278 (51.01)	136 (48.23)	142 (53.99)
본인 최종 학력 (n=533)			
고등학교 졸업 이하	76 (14.26)	34 (12.45)	42 (16.16)
2년제 대학 재학·졸업	116 (21.76)	63 (23.08)	53 (20.38)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	341 (63.98)	176 (64.47)	165 (63.46)
아버지 최종 학력 (n=460)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4 (53.04)	121 (49.79)	123 (56.68)

	전체 (n=545)	수도권 거주 (n=282)	비수도권 거주 (n=263)
2년제 대학 재학·졸업	46 (10.00)	22 (9.06)	24 (11.06)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	170 (36.96)	100 (41.15)	70 (32.26)
어머니 최종 학력 (n=493)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1 (63.08)	149 (57.31)	162 (69.53)
2년제 대학 재학·졸업	64 (12.98)	37 (14.23)	27 (11.59)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	118 (23.94)	74 (28.46)	44 (18.88)
월 평균 개인 소득			
월 300만 원 미만	373 (68.44)	191 (70.22)	182 (66.67)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143 (26.24)	67 (24.63)	76 (27.84)
6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7 (3.12)	7 (2.57)	10 (3.66)
900만 원 이상	12 (2.20)	7 (2.57)	5 (1.83)
월 평균 가구 소득			
월 300만 원 미만	126 (23.12)	54 (19.15)	72 (27.37)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226 (41.47)	109 (38.65)	117 (44.49)
6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19 (21.83)	72 (25.53)	47 (17.87)
900만 원 이상	74 (13.58)	47 (16.67)	27 (10.27)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이어서 <표 4>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STATA 16을 통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단측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청년세대 미래전망과 독립변수인 인적자본(아버지 최종 학력, 어머니 최종 학력), 사회자본(부모 인적 네트워크, 문화자본(부모 문화생활)은 상관관계수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수는 절댓값 .151~.661의 범위로 0.8 미만이었으며, 독립변수 중 부모 세대의 문화생활 수준이 청년세대 미래전망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336**)를 나타냈다. 이후로는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248**), 아버지의 최종 학력(.186**), 어머니의 최종학력(.151**) 순서로 상관계수 수준이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분석

	청년세대 미래전망	아버지 최종 학력	어머니 최종 학력	부모 인적 네트워크	부모 문화 생활
청년세대 미래전망	1				
아버지 최종 학력 (인적자본)	.186**	1			
어머니 최종 학력 (인적자본)	.151**	.661**	1		
부모 인적 네트워크 (사회자본)	.336**	.251**	.263**	1	
부모 문화생활 (문화자본)	.248**	.152*	.194**	.510**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1 수준에서 유의함.

3) 부모세대의 자본이 청년세대의 미래전망에 미치는 영향

청년세대의 미래전망에 대한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5>과 같다. 먼저 지역 구분 없이 전체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독립변수들 중 부모의 문화자본이 정(+)의 방향으로 청년 미래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1단위 증가할 때 청년 미래전망 수준이 .188만큼 증가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모세대의 문화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본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반면 부모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은 통계적으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

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본 가설 1과 “부모세대의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본 가설 3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어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미래전망에는 부모의 사회자본이 1단위 증가할 때 미래전망 수준이 .0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문화자본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의 경우,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는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또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미래전망에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1단위 증가할 때 미래전망 수준이 .304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모의 사회자본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청년들의 양상과 대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의 경우, 사회자본 외 타 자본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는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표 5>청년세대의 미래전망에 대한 부모자본 영향력

coef. (t)	종속변수: 청년세대 미래전망		
	전체 청년세대	수도권 거주 청년	비수도권 거주 청년
아버지 최종 학력 (인적자본)	.027 (1.43)	.038 (1.55)	.022 (0.71)
어머니 최종 학력 (인적자본)	-.011 (-0.52)	-.024 (-0.93)	.004 (0.10)
부모 문화생활 (문화자본)	.188*** (4.84)	.097 (1.82)	.304*** (5.13)
부모 인적 네트워크 (사회자본)	.025 (0.98)	.078* (2.35)	-.051 (-1.28)

종속변수: 청년세대 미래전망			
coef. (t)	전체 청년세대	수도권 거주 청년	비수도권 거주 청년
월 평균 개인 소득	-.001 (-1.27)	-.001 (-0.73)	-.001 (-0.81)
월 평균 가구 소득	.025* (2.50)	.028 (2.09)	.031* (2.07)
본인 최종 학력	.047* (2.25)	.046 (1.49)	.053 (1.85)
성별	-.035 (-0.62)	-.047 (-0.62)	.002 (0.03)
연령	-.010 (-1.83)	-.013 (-1.89)	-.004 (-0.55)
현재 지역에 거주한 기간	-.058** (-2.84)	-.033 (-1.19)	-.085** (-2.76)
N	416	222	194
R ²	.200	.190	.26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001, **p<0.01, *p<0.05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청년세대 전체에 대해서 부모의 문화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할 경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전망에는 부모의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의 자본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중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본 또는 지역 내에서의 자본 활용 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 월 평균 가구 소득과 본인 최종 학력이 청년의 미래전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월 평균 가구소득은 비수도권 청년들의 미래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청년의 미래전망에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 현재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청년세대의 미래전망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을 구분하였을 때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청년일수록 부정적인 미래전망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2. 질적 연구

1) 청년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부모세대의 영향

면접대상자들 중 다수는 한국사회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양측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으로는 비관적인 취업시장 전망과 치열한 경쟁,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청년들의 자기 미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매일 8시 뉴스를 보는 편인데 그닥 좋은 얘기가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대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일단 지금 취업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취업을 하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 D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시대에도 어찌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고 공백기가 확대됐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각자 도생하게 되는 그런...” ... L

이후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형성되는데 있어서 부모세대의 자본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부모세대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면접대상자 별로 다양하게 포착되었다. 특히 사회자본의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는 알지 못했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거나, 창업이나 학원 선택 등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부모의 인맥 또는 관계망으로 이해되었다. 전체적으로 면접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무형의 자본요소 중 사회자본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사실 부모님의 어떤 문화적인 자본이 저한테 영향을 끼쳤다고보다는 어떤 더 큰 범위에서 사회적 자본이 저는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인맥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자본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 K

“사회자본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엄마가 (저의) 같은 반 친구들 엄마들끼리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 학원이 어디가 좋냐 어떤 독서실을 가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 - D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문화자본 및 사회자본)을 집에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에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좀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거든요. 주변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 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 좀 약간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 B

특히 면접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이 부재한 관계로 받게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되기도 하였다. 부모가 농촌에 거주하는 한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특정 영역이나 기술에 대해 부모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가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 또는 교육 차원에서의 손해가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저희 아버지가 농촌에서 자라시고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우여가지고, 두 분 다 뭔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에 가본다거나... 해외여행을 멀리 간다거나 그런 경험이 정말 없었어서 문화적 자본에서는 도움을 많이 못 받았는데...” - Q

2) 지역과 불평등

면접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시설에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 교육 기관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있으며,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스펙’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부모가 서울에 살아서 자식이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도 정말 큰 도시이긴 하지만 제가 서울에 와서 느낀, 인프라나 자본을 습득할 수 있는 수준 차이가 좀 심하게 크다고 보았고...” - B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 같은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걸 더 선호할 것 같아요” - J

이와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프라와 제한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답변은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자주 나타났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만한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생활 인프라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

각을 했었고요. 아이들에게 가는 영향... 경험이라든지 좀 더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서울이나 수도권이 훨씬 잘 되어 있으니...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꽤 있을 것 이라고...”- H (부모 세대)

“지방이나 지역에서 살아본 사람은 향수 등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도권 사람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사람들에게 지방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

3) 부모 세대의 자본 활용 과정에서의 지역적 요소

부모 세대의 자본을 실제로 활용한 인식과 어느 수준으로 이를 활용하는지는 면접 대상자들마다 다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가 가진 자본과 배경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역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 세대에서도 나타났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 있는 부모세대에서도 포착되었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이나 문화적 환경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망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모 세대 응답자 중에서는 효과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할 다른 부모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ChatGPT가 요새 핫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목동 주변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강연이나 체험 이런 수업들...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쪽 (비수도권) 친구들은 부모조차도 ChatGPT가 뭔지도 모르는거예요. 그러다보니 아이에게 가르치고 경험을 시켜줄 생각도 못하겠죠.”- F (부모 세대)

“저는 지금까지 투자 이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오로지 돈을 모으면 적금 아니면은 은행 저축... 왜냐 하면 저희 부모님도 다 그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 큰 차이가 있었고” - M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면 소득 수준이 상당해야 하고 주변에 그렇게 같이 하는 (부모) 친구들이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고...”- G (부모 세대)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자본이 청년세대의 미래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지역적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자본을 통제 후 부모 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했을 때 문화자본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라 부모세대의 문화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를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수도권의 경우 미래전망에 대해 사회자본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반대로 비수도권에는 문화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의 경우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며,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에는 타자본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 연구 가설은 지지되었다.

양적 연구 이후 실시한 질적 연구는 수도권의 유기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공간이 어떻게 청년세대의 미래전망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공통적으로 자녀세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력만이 전부가 아니며, 자녀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망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개인화로 인해 자발적 연대가 필요함을 가정하

는 수도권 지역에서, 해당 사회공간 내 거주하는 이들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청년세대에게 자본을 상속하기 위한 상호의존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부모 세대의 자본 상속이 사회공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공간의 개인화 수준과 그에 기반한 연대의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공간의 연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역 단위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유기적 연대와 기계적 연대의 장으로 전제하고 두 사회공간 간 연대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전제한 본 연구의 시각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불평등이 청년세대에 상속되는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공간의 특성과 개인화 수준, 연대 방식 등이 주요한 관심사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이어지는 변화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연속적인 공간 개념으로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변화의 과정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문화자본이 청년세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은 확인하였으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존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지지된다는 점에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자료원이 제공하는 질문 문항의 한계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의 자본을 측정하는 문항을 정교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가 실시한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양적 연구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며, 질적 연구의 내용만으로는 유기적 연대와 기계적 연대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미래전망에 대한 부모 자본의 영향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공간 내 각기 다른 연대 방식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하는 부모의 자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대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양적·질적 연구 방안과 질문 등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련 (2014). 노인의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본,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 고상민, 황보환, 지용구 (20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한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5(1), 103-118.
- 김갑수, 한상연 (2018). 문화자본 측정지표의 개발 및 검증. 우리춤과 과학기술, 14(4), 167-187.
- 김경식, 안우환 (2003).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서 가족의 사회적 자본 탐색. 교육학논총, 24(1), 81-99.
- 김덕호 (2021).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진학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논집, 35(2), 85-112.
- 김승연, 박민진 (202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정책리포트, 1-21.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영화 (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RR93-21). [KEDI] 연구보고서, 1-376.
- 김의동 (2019). 한국경제 저성장 함정과 구조적 요인 - 증진국함정 주요 발생 요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아태경상저널, 11(3), 126-156.
- 김정숙 (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40(1), 141-165.
- 김종성·이병훈 (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90, 296-330.
- 문영만, 홍장표 (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2), 165-187.
- 박창남, 도중수 (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박해남, 박미희 (2021). 다중격차 시대 지역 청년의 자본과 아비투스. *경제와 사회*, (131), 55-87.
- 방하남, 김기현 (2002). 기회의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서유석 (2013). '연대'(solidarity)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철학논총*, 72, 385-407.
- 성용구 (2013). 혼합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전략. *열린교육연구*, 21(3), 129-151.
- 어홍실 (2016). 한국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오은주 (2008). 혼합연구방법론 (Mixed Methods):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교차시키기. *국토*, 132-141.
- 이미숙 (2022). 청년세대의 주관적 계층인식 영향 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23(4), 43-66.
- 이상일 (2007).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소고. *인제논총*, 22(1), 97-111.
- 이소영, 이창무 (2019).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5(4), 85-102.
- 이수비, 신예림, 윤명숙 (2022).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2), 369-389.
- 이자영, 연보라 (2012). 전공계열에 따른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연구*, 22(4), 199-226.
- 이형문 (2012). 문화자본과 예술관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장미혜 (2001).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35(3), 51-81.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5(4), 223-251.
- 장상수 (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53(3), 63-85.
- 장상수 (2016). 벌어지는 틈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 *한국사회학*, 50(5), 107-140.
-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2), 7-34.
- 정우연, 조하영, 김석호 (2022). 무엇이 청년의 꿈을 가르는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역량에 따른 꿈의 내용 차이. *조사연구*, 23(1), 107-130.
- 조귀동 (2020) *세습중산층 사회*, 서울: 생각의 힘
- 조명래 (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희숙, 김안나 (2014) 대졸자의 첫 직장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대학특성 요인, *교육종합연구*, 12(4), 263-280.
- 진미정, 한준, 노신애 (2019). 20-30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의 한국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 전망의 관련성. *가족과 문화*, 31(1), 166-188.
- 허윤주 (2015).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ETPB) 을 적용한 문화자본이 문화예술관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내국인 해외관광객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Anheier, H. K., Gerhards, J., & Romo, F. P.

- (1995). Forms of Capital and Social Structure in Cultural Fields: Examining Bourdieu's Social Topograph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4), 859-903.
- Bartee, R. D., & Brown, M. C. (2007). CHAPTER ONE: Insight Into the Different Forms of Capital. *Counterpoints*, 312, 1-47.
- Becker, G. S. (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R. Nice,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urkheim, E. (1933).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Toronto: Macmillian.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derman, L. C. (1990). Assessing educational effectiveness: The focus group interview as a technique for data collection. *Communication education*, 39(2), 117-127.
- Lin, N. & Dumin, M. (1986). Access to occupations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365-385.
- Morse, J. (2007). *Principles of Mixed Method Design*, The 13th Annual Qualitative Health Research Conference 2007, Hosted b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Qualitative Methodology College of Ehwa Woman University.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Parker, A., & Tritter, J. (2006). Focus group method and methodology: current practice and recent debat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 Method in Education*, 29(1), 23-37.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2023. 8. 8.

심사일자: 2023. 10. 13.

게재확정일자: 2023. 10. 18.

Influence of Parental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n the Youth Future Prospect: Difference between Metropolitan versus Non-Metropolitan Areas

HyeongSoo Kim

SeongMin Park

JaeEun You

KyungMin Baek

Soongsil
University,
Master's Student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Special Space,
CEO, Ph.D.

Soongsi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parental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n the youth generation's future prospects, while also exploring the potential impact of residing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study employs a mixed-method design, incorporat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utilizes data from the "Youth Future Outlook Survey 2023," conducted in March 2023 by Special Space, a non-profit youth research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show that the level of cultural capital, represented by parental engagement in cultural activitie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future prospects of the overall youth generation. However, when analyzing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residents separately, we found that the prospects of the metropolitan youth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arental social capital, while those of the non-metropolitan youth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arental cultural capital. These findings were further supported by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condu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the residential area when formulating policies to address the inequalities within the youth generation. In metropolitan areas, there should be efforts to foster trust and social bonds among community members, whereas for the non-metropolitan you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ultural infrastructure to ensure access to cultural capital.

Keywords : Youth's future prospects, Parental capital, Metropolitan residency,
Non-Metropolitan residency